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의 분쟁해결방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베트남·캄보디아 출신여성을 중심으로

정용균

국립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An Exploratory Study on Dispute Resolution Pattern of Vietnamese and Cambodian Marriage Immigrant Women in Multi-Cultural Family

Yongkyun Chung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분쟁해결 대처방식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두 번의 세부 연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 연구는 폐쇄형 설문지를 통하여 12명의 베트남과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두 번째 연구는 5명의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지에 대한 응답과 면접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상당수 결혼이주 여성들은 분쟁이 발생할 때 주로 모국인과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부부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들은 분쟁이 발생할 때 주로 갈등회피 형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 분쟁해결, 갈등회피, 베트남, 캄보디아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dispute resolution patterns which Vietnamese and Cambodian marriage-immigrant women have utilized in their lives of South Korea. We implement two independent studies us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tudy based on interview method. Our findings show that first, most of marriage immigrant women from Vietnam and Cambodia adopt conflict avoidance method to resolve their disputes. Second, most of respondents tend to consult with people from mother countries in dispute resolution. Thir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may play an important role for consulting disputes of cross-border marriage women.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y, Marriage immigrant woman, Dispute resolution, Conflict avoidance, Vietnam, Cambodia

1. 서론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들은 출산율이 매우 낮은 우리 현실에 비추어볼 때, 미래세대를 창출하는 중요한 인

적자원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결혼이주여성의 구성 및 내용에는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일본 및 중국여성들의 결혼 이주가 이루어져 왔다면, 2005년 이후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Corresponding Author : Yongkyun Chung(ykchung@kangwon.ac.kr)

Received January 6, 2020

Accepted February 20, 2020

Revised February 3, 2020

Published February 28, 2020

로부터의 결혼 이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1].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문화권은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동북아시아 문화권과는 차별화가 이루어진 지역이다. Gupta et al [2] 에 의하면,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유교가 주류문화인 반면, 인도차이나반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인도문화가 저변에 깔려있다. 예를 들어 동남아 최초 왕국인 부남왕국의 건국설화에는 인도에서 브라만계층 청년 까운딘이 상선을 타고 도래하여 국가를 건국한 것으로 되어있다 [3]. 따라서 중국이나 일본 출신 결혼이주 여성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 출신 결혼이주 여성들이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Hofstede et al [4] 의 문화적 차원 연구에 의하면, 일본이 매우 강한 남성적 문화의 특징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베트남은 여성적 문화의 특징을 보이며 부계사회와 모계사회가 공존하는 양계문화라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5]. 현재에도 비즈니스업계에 여자 사장이 많은 등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6],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이래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강조되면서 그 지위는 강화되어왔다. 13세기 캄보디아를 방문했던 원나라 외교관 주달관 [7] 에 의하면, 眞臘(캄보디아)은 여성이 남성보다 우대받고 있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른 국가 출신 결혼이주여성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지영 [8] 에 의하면, 한국인 배우자는 결혼이주여성이 영어나 일본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베트남어나 캄보디아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최대희 [9] 에 의하면, 한국인 배우자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나이 격차는 평균 17.1세로 나타나서 결혼이주여성 전체 평균 나이 격차인 11.7세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서 부부간 적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현미·호양티비엣 [10] 에 의하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상당수가 농촌 지역인 메콩 델타지역 출신으로 교육수준이 낮고 경제적 이유로 국제결혼을 선택한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 결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본국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1]. 한편 다문화가정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12], 가정폭력과 고부간의 갈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박충선·배나래 [13] 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26.1%가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베트

남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우울증을 경험한 사례가 중국이나 일본 결혼이주여성들에 비교해 볼 때,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14],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다 [15]. 따라서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갈등과 분쟁해결방식을 규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Hugh [16] 와 송정남 [17] 에 의하면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경우 주로 공동체 내의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한국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어떠한 분쟁해결방식을 선택할지 알 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어떠한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직면하는 분쟁유형과 분쟁이 발생할 때 누구와 주로 상담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분쟁해결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분쟁해결유형을 규명할 수 있다면, 향후 다문화가정의 건실한 성장에도 기여하고, 다문화가정의 이혼에 대한 시사점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관련 문헌에 대한 선행연구를 시행하고 설문조사와 면접을 통하여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분쟁해결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갈등과 분쟁에 처하게 된 원인으로는 첫째,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조현미·호양티비엣 [10] 에 의하면 베트남 남부 메콩델타 지역에서는 상당수 결혼중개업자를 통하여 결혼이 주선되고 있다. 결혼중개업소를 통한 결혼의 경우 사전에 한국어에 대한 학습이 될 가능성은 적은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의사소통이 미흡한 결과 시어머니가 지시한 사항을 결혼이주여성이 이행하지 않아서 외국인 며느리는 ‘게으르다’는 인상을 가지게 된다 [12]. 한편 권복순 [18] 에 의하면 한국어 능력이 출중한 경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자기 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능력의 습득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는 경제적 요인이다. 1998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은 30만 명에 달

했으며 배우자 국적으로는 대만(30%), 미국(14%), 한국(12%), 중국(11%) 4개 국가가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10]. 메콩 델타 지역은 소득수준이 낮고 실업률이 높은 지역으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빈곤한 가정 출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미숙 [19]의 사례연구에서도 결혼 전 베트남 생활이 부모가 병들어 있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처럼, 메콩 델타지역에서 대만 남성이나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의 82.5%는 경제적 이유로 국제결혼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상당수 모국에 송금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호림 [20]은 이주를 택한 베트남 여성은 송금을 통해서 친정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최대희 [9] 역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친정을 돕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애련 [21]에 의하면 실제로 적지 않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본국 가족에게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김현곤 [1] 역시 대구지역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이 가족에 송금하는 비중이 40% 가까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사회에 동화되기를 바라는 배우자와 본국 가족을 도우려는 결혼이주여성 간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셋째는 문화적 차이이다. 베트남과 한국은 생활양식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정혜연·김진우 [22]가 심층 면담한 결혼이주여성은 “베트남에서는 여성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한국에서는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만을 강요당하고 있어서 결혼이주여성을 하녀 취급한다.”고 울분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은주·전미경 [23]과 김태자·권복순 [24]에 의하면 베트남에서는 음식과 반찬도 남자가 마련하고, 가사 활동도 남자가 분담하지만, 한국에서는 남자는 가사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양자 간 갈등이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은주·전미경 [23]과 김태원 [25]에 의하면 베트남에서는 명절이 마을 공동체 전부의 축제여서 서로 다른 집을 방문하는 등 재밌거리가 많지만, 한국은 아파트의 폐쇄된 공간에서 제사만 지내고 말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애련 [21]에 의하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특히 제사 차리는 것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넷째, 배우자와 결혼이주여성 간 기대차로 인한 실망과 갈등이다. 최대희 [9]에 의하면, 한국인 남성이 기대하는 베트남 신부는 유교 영향을 받아, 순종적이고, 남편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격동적인 현대사로 억척스러운 생활력이 있고, 한국인과 외모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이

상적인 신부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교는 베트남 북부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제한적인 차원에서 영향력이 있었으며 대다수 지역은 모계사회에 가까웠다 [5]. 고미숙 [19]에 의하면 베트남 여성들은 성 문제에 있어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개방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보수적인 한국 남성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베트남의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배우자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성 평등 의식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3]. 결과적으로 한국인 남성이 기대하는 베트남 신부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기대하는 배우자상에는 괴리가 존재한다.

다섯째, 고립감을 들 수 있다. 대다수 결혼이주여성들은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홍달아기 외 [26]에 의하면, 몸은 한국에 있고 마음은 모국에 있는 두 개의 문화가 공존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친정에 대한 연민으로 친정을 도와야 하는 숙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이향수·이성훈·최경아 [27]는 현대 디지털정보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 가정은 정보소외계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어서 더욱 고립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차승은·김두섭 [14]에 의하면, 이러한 고립감의 누적으로 인해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증이 중국이나 일본 결혼이주여성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시댁 식구와의 갈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상당수 갈등은 고부갈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혜연·김진우 [22]에 의하면 시어머니가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 동화를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태원 [25]은 남편이 시어머니 말만 듣고 배우자 의견은 듣지 않는다고 섭섭함을 토로하는 사례도 보고하고 있다. 김경미 [28]에 의하면, 일본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동거가족의 크기가 클수록 생활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동거가족의 크기가 클수록 생활만족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댁식구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최승은 [29]에 의하면,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가 종일 기도하고 남편 누나와 시어머니가 추운 겨울에 대비해서 옷을 많이 사주는 등 정주민 가족의 환대를 받은 경우도 보고하고 있다.

3.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양적 연구기법인 설문조사 기법과 질적 연

구기법인 면담기법을 병행하기로 한다. 질적 연구기법이 필요한 이유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분쟁해결 양상에 대한 연구가 거의 드문 실정인 이상 양적 연구에 필요한 어떤 가설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결혼이주여성들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서 타인과의 만남을 꺼려하기 때문에 직접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는 매우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쟁해결의 대략적 개황을 알기 위해서는 설문조사가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King et al [30] 역시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최선의 연구방법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Yin [31], Creswell [32] 과 강근복 [33] 은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병용하는 연구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11월 10일부터 12월 27일 기간 동안 조사가 이루어졌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설문조사의 협조를 구하였다. 총 12명의 베트남과 캄보디아 결혼이민 여성이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두 번째로, 연구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3명의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 여성들과 2명의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전체 면담과 개별 면담을 병행하였다.

4. 사례분석

4.1 STUDY 1

첫 번째 연구는 폐쇄형 설문지를 활용하여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의 분쟁 해결 방식을 전체적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 자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18].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개방적 질문에 응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질문 문항을 이해하기 쉽고 단순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도 응답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으며 설문지를 작성한 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가에게 보여서 설문지의 가독성을 인정받은 후 시행하였다.

4.1.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12명의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을 소개받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뒤, 김이선 외 [34] 와 정용균 [35] 의 설문문항들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특히 부부갈등원인과 자녀 교육에 대한 상담

자 등은 김이선 외 [34] 의 연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지에는 모든 연구 참여자가 연구결과물에서 익명으로 처리됨을 기재하였으며, 응답자 모두에게 각각 소정의 답례품을 증정하였다.

4.1.2 분석결과

본 연구는 한국체류 기간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1년 미만인 3명, 1년에서 2년 미만 체류가 3명, 3년에서 4년 미만 체류가 3명, 5년에서 9년 미만 체류가 2명, 10년에서 15년 미만 체류가 1명으로 골고루 나타났다. 부부간 대화시간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2시간 이상 대화한다는 부부도 4쌍으로 나타났으며 30분에서 1시간 미만 대화한다는 부부도 3쌍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1시간에서 2시간미만 대화한다는 부부가 2쌍, 30분미만 대화한다는 부부도 2쌍으로 나타났다. 아예 대화 안 한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12명의 응답자 중에서 3명의 응답자가 평소에 거의 대화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부간 사이가 원만하다는 징표라고 볼 수 없어서 갈등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1) 부부갈등 원인

본 연구는 부부갈등 원인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한 Table 1에서 CAR은 성격차이를 의미하며, CUL은 문화적 차이를 의미한다. CHI은 자녀문제, ECO는 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낸다. FAM은 가족문제를 의미한다. 복수응답을 허용한 이 문항에 대하여 가장 빈도수가 많이 나온 응답은 언어소통문제로 12명 중 7명이 응답하고 있다. 그 나머지는 성격 차이 2명, 경제문제 1명, 자녀 교육문제 2명으로 나타나고 문화 차이와 시댁 문제가 1명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문제가 부부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나온 것은 결혼이주여성의 혼인 경로가 주로 결혼중개업소를 통한 데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결혼중개업소를 통한 결혼은 사전에 충분한 한국어 교육 등의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중개업소에 상당한 액수를 지불한 한국인 남성이 해당국에 내방하여 짧은 시간에 결혼 후보 여성과 대면한 후, 결혼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어를 사전에 공부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문제는 그러한 혼인방식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동남아시아 지역 자체의 문화가 제3자에게 자신의 내밀한 사적인 문제를 내비치는 것을 꺼려한다고 볼 때, 12명 중 1명이 응답한 경제문제는 중요한 부부갈등원인으로 보인다. 이는 상당수 다문화

가정이 대부분 평균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며,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취업률이 중국이나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취업률에 비교하여도 낮게 나오고 있어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인다. 자녀교육문제도 부부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교육비가 상당하다는 점과 대부분의 한국 가정이 자녀교육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녀 교육문제는 다문화가정의 부부갈등의 원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성격 차이가 갈등원인의 한 가지로 나타난 점은 상당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배우자와의 평균나이 격차가 다른 일본인이나 중국인 결혼이주여성들에 비교하여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대 간 차이에서 오는 요인일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김오남 [36] 에 의하면 음주도 부부갈등의 원인으로 나타나는데 적어도 본 연구에서는 음주는 부부갈등 원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 Factors of Marital Dispute

	CAR	CUL	LAN	CHI	ECO	FAM
1	-	-	0	-	0	-
2	0	-	-	-	-	-
3	-	-	0	-	-	-
4	-	-	0	-	-	-
5	-	0	-	0	-	-
6	-	-	0	-	-	-
7	-	-	-	-	-	0
8	-	-	0	-	-	-
9	-	-	0	-	-	-
10	-	-	0	-	-	-
11	0	-	-	-	-	-
12	-	-	-	0	-	-

2) 상담자

다문화가정이라는 낯선 외지에서의 생존에 있어서 상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항목에서는 부부싸움, 자녀교육문제, 여가취미 생활이라는 3 가지 측면에서 상담할 조력자가 있는지 질문하였다. Table 2에서 M은 모국 인을 의미하며 K는 한국인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흥미로운 점은 부부싸움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모국인과 상의하고 있지만, 자녀교육문제는 대부분 한국인과 상의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한편 여가 및 취미 생활을 모국인과 의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싸움 문제나 여가 취미 생활의 경우 압도적으로 모국인과 의논한다는 것은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

이 한국사회와 고립되어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비록 그들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이주하여 살고 있지만, 사회네트워크는 주로 모국인 네트워크를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녀교육문제를 주로 한국인과 상의하는 것은 자녀의 학교생활 자체가, 급우로부터 외모나 언어 등의 이유로 차별을 당한다든가, 부모가 자녀 학습을 도와준다든가 등등 결혼이주여성으로는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인 학부모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Table 2. Dispute Consultant

	Marital Dispute	Children Education	Leisure
1	M	M	M
2	M	K	M
3	M	K	M
4	M	K	M
5	-	K	M
6	M	K	M
7	M	M	M & K
8	M	K	M
9	M	K	M
10	M	K	M
11	M	M	M
12	M & K	K	M & K

3) 부부갈등 해결방식

본 문항에서는 응답자들에게 부부싸움 해결방식을 질문하였다. 응답자 12명중에서 압도적으로 10명이 부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해결한다는 응답도 12명 중 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분쟁해결 관점에서 큰 역할을 할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는 이정은 [37] 의 연구에서 보듯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는 연구와 일맥상통하다고 하겠다. 다른 다문화가정 친구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12명 중 1명이 응답하여서 일종의 사회네트워크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부모님을 통한 해결이나, 변호사를 통한 해결, 종교단체를 통한 해결은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동남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부부갈등이 발생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상당히 고립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Intermediary of Dispute Resolution

	Self Reliance	Multi-culture Family	Multiculture Family Support Center
1	0	-	0
2	0	-	-
3	0	-	-
4	0	-	0
5	-	-	0
6	0	-	-
7	0	-	-
8	0	-	-
9	0	-	-
10	0	-	-
11	-	0	0
12	0	-	-

특히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가정이 해체된 경우가 중국이나 일본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되는 사례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결혼이주여성의 고립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대체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평균 결혼연령이 중국이나 일본 결혼이주여성들에 비교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고, 배우자와의 나이 격차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아직 알려진 연구가 많지 않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동남아시아 결혼이주여성들은 부부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슬기롭게 해쳐나가는 능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부부갈등을 자체 해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부갈등이 발생할 때 해결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부부상담도 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 소결

베트남과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들은 부부갈등의 원인으로 의사소통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오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지원은 한국어교육과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제공에 치중해있다 [38]. 부부갈등 해결방식으로는 부부 자체 해결이 가장 많았으며, 분쟁 및 갈등이 발생할 때, 주로 모국인과 상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동남아 결혼이주여성들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약하고, 한국사회 내에서 고립되어 있다고 추측된다. 제2위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의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동남아시아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과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2 STUDY 2

두 번째 연구는 두 단계에 걸쳐서 시행되었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 면담대상 5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약속날짜에 연구 참여자들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교육실에서 만나서 개방형 설문지를 배포하고, 이를 작성하게 하였다. 둘째, 개방형 설문지에 대한 응답이 종료한 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한 명씩 10여 분씩 개별적으로 만나서 추가 질문을 하였다. 따라서 두 번째 연구는 전체 면담과 개별 면담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A, B, C, D, E로 호칭하고 익명 처리하였다.

4.2.1 연구 설계

두 번째 연구에서는 개방형 설문지 작성 및 면담 순서로 시행하였다. 본 절에서의 개방형 설문지는 모든 설문 문항이 직접 응답자가 기술하도록 되어 있어서 응답자의 생각이 기술된다는 특징이 있다. 갈등대처에 관한 설문 문항은 정혜연·김진우 [22] 연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갈등에 직면하기 보다는 갈등을 회피하는 경우가 지적되고 있어서 본 설문문항을 설정하였다. 외로움에 대한 문항은 홍달아기 외 [26]의 연구를 참조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문항은 현경자 [39]의 연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부부갈등에 대한 문항은 김이선 외 [34]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문화적 차이에 관한 문항은 이은주·전미경 [23]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본 면담조사에는 3명의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과 2명의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응하였다. 연구윤리를 고려하여 먼저 연구자 스스로 소개를 하고, 연구 취지와 연구목적 및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다음 모든 연구 참여자는 익명 처리되므로 비밀이 유지됨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내용 및 면담 내용은 연구에만 활용됨을 말하였다. 그러한 설명 및 고지를 시행한 뒤 정보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서명으로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면담자 모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각각 증정하였다. 면담에 응한 결혼이주여성들 중 일부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

도 있었으나, 3명은 한국에 온 지 10년 이상이 된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었다.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녀가 있었다. 학력은 대학 졸업 및 중퇴도 2명 있어서 고학력자였으며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라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5명 중 3명은 부부간 나이 격차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2명 중, 한 명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고 한 명은 부부간 나이차가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다.

4.2.2 분석결과

1) 부부갈등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과 개별 면담한 결과,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부부싸움의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연구 참여자 2인은 경제문제로 부부갈등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 2인은 자녀 문제로 다툰 것으로 진술하였다. 한 명은 특히 교육문제 때문에 부부 의견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였다. 예를 들어 남편은 딸을 귀여워한 나머지, 딸이 잘못해도 야단치지 않은 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부인도 일하는 경우가 많은 베트남 부모 기준으로는 자신이 잘하고 있지만, 한국인 부모의 교육열을 따라갈 수 없다고 속상해하였다. 연구 참여자 1인은 성격 차이로 부부갈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더구나 의사소통능력 부족으로 부부갈등이 더 악화된다고 하였다.

“부부싸움 있습니다. 서로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부싸움 하기도 하고 애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연구 참여자 A). “아이를 키우는 방법, 언어, 습관, 생각 등 가끔 부부싸움이 있습니다. 남편은 딸이 잘못해도 야단치지 않아요. 베트남에서는 여자가 일하므로 한국처럼 자식 교육에 집중할 수 없어요.”(연구 참여자 B). “의견 안 맞고 자주 부부 싸웠어요. 경제문제 때문에 말싸움 싸웠습니다.”(연구 참여자 C). “성격 차이하고 생각 다르고 말을 다 표현하지 못해서 가끔 싸웁니다.”(연구 참여자 D). “경제적 문제로 부부싸움 가끔 있습니다.”(연구 참여자 E).

2) 문화적 차이

다문화가정 연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문화적 차이가 거론되고 있다. 다섯 명의 연구 참여자 모두 모국과 한국간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연구 참여자 A는 베트남에서는 명절에 동네 사람 모두 참여하는 축제형식인 점과 비교하여 한국의 명절은 가까

운 직계가족들만 명절을 지내서 심심하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C는 베트남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가사를 분담하고 남성도 요리하고 무거운 것을 나를 때는 남자가 이를 도맡아 하는데, 한국 남성은 가사 일을 돕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언급은 이은주·전미경 [2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하였다. 한편 연구 참여자 C와 E는 모두 제사 음식 차리는데 고충을 토로하였다. 이는 이애련 [21]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인 연구 참여자 E는 캄보디아 사회를 모계사회라고 진술하였으며, 일례로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도 여성을 많이 채용한다고 말하였다. 이는 가부장적 요소가 많은 한국사회와 대조된다고 보았다.

“네 문화적 차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명절 때 동네사람 전부 참여하는데, 한국은 가족끼리만 명절을 지내서 심심하고 외롭습니다.”(연구 참여자 A). “문화적 차이 많이 있습니다.”(연구 참여자 B). “네. 제사, 음식 등 문화적 차이 있습니다. 제사할 때 여러 음식 차리는데 힘듭니다. 베트남에서는 남자는 돼지고기 요리하고 부인은 부엌에서 요리합니다. 무거운 것은 남자가 듭니다.”(연구 참여자 C). “문화차이 있지만 맞추어서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연구 참여자 D). “제사나 음식은 차이가 있긴 한데 이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캄보디아는 모계사회여서 이력서를 내면 여자를 더 뽑습니다.”(연구 참여자 E).

3) 외로움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들은 상당수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de Jong -Gierveld [40]에 의하면, 외로움이란 주관적으로 지각된 사회적 격리이다. 홍달하기 외 [26]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은 “몸은 한국에 마음은 모국에 있는 상태”로 외로움을 서술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5명 중 3명은 외로움을 직접 토로했다. 연구 참여자 C 역시 음악을 듣거나 모국에 있는 친정어머니와 전화 통화함으로써 외로움을 달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 E는 매우 힘들 때는 “혼자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 B는 혼자서 고기 먹으로 간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 A는 TV 드라마 보거나 한국어 공부한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 D 역시 TV 본다고 응답하였다. 결국, 다섯 명의 연구 참여자 모두 아이 양육으로 힘들 때나 남편이 일하고 있어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 외로움을 느꼈으며, 힘든 일을 경험할 때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두 명의 동남아시아 결혼이주여성들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더욱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인 연구 참여자 B는 특히 자녀 교육과 양육에 있어서 고충을 토로하였다. 자신이 한국의 동화 등을 잘 몰라서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한국의 학원정보 등에 있어서 한국인 부모에 비교하여 월등하게 정보가 미흡한 것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TV 드라마 보거나 한국어 공부하거나, 집에 혼자서 있다.”(연구 참여자 A).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아이를 키울 때, 남편이 일하느라 집에 안 들어올 때 외롭습니다. 외로울 때 혼자서 고기 먹으로 갑니다. 가서 2인분 시킵니다.”(연구 참여자 B). “음악을 들어요. 드라마를 봐요. 엄마랑 통화해요.”(연구 참여자 C). “자녀하고 놀러가거나 TV봅니다.”(연구 참여자 D). “모국 친구들과 통화하거나 페이스북을 합니다. 너무 힘들었을 때에는 누구와도 같이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연구 참여자 E).

4) 분쟁유형

본 항목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의 분쟁유형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한 가지는 가족 분쟁이고 다른 한 가지는 직장 내 분쟁이고 마지막으로 자녀 학교 내 분쟁 즉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급우와 다툰이 있는 경우를 상징하고 질문하였다. 이 결과 가족 분쟁의 경우는 다섯 명의 연구 참여자가 모두 존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C는 남편과 갈등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연구 참여자 D는 자녀와 갈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직장 내 분쟁의 경우는 연구 참여자 B와 E는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녀 학교 내 분쟁의 경우는 다섯 명 중 한 명이 분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김하영·강버들 [38] 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우가 17,2%로 나타나서 실제로 집단 따돌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5명의 연구 참여자 중에서 한 명만 학교생활 중 어려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able 4. Dispute Types

	Family Disputes	Disputes within Firm	School Disputes
A	Yes	No	No
B	Yes Often	Yes	No
C	Yes with Husband	No	Yes
D	Yes with Child	No	No
E	No	Yes	No

5) 분쟁대처방식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당사자 특히 분쟁피해자가 이에 대처하는 방식은 분쟁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서양의 경우에는 분쟁상황에 맞서서 대처하는 방식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동양에서는 대체로 갈등을 회피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룬다. 본 항목에서는 정혜영·김진우 [22] 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의 분쟁대처방식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한 가지는 갈등을 회피하는 방식, 다른 한 가지는 서로 팽팽하게 맞서는 방식, 다른 한 가지는 강하게 대처하는 방식이었다. 이 세 가지 대처 방식에 대하여 다섯 명의 연구 참여자는 대부분 갈등회피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A는 그냥 대꾸하지 않고 인내한다고 응답하였다.

Table 5. Dispute Resolution Strategy

	Conflict Avoidance	Weak Response	Strong Response
A	Endurance	No	No
B	Remember the happy time	No	No
C	Explain my inner feeling	Call Police officer	No
D	No	No	Be quiet faced with anger
E	Explain my inner feeling	quarrel with loud voice	Go to other place and stay for a long time

연구 참여자 B는 결혼 전 연애시절 배우자와 즐거웠던 적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고 진술하였다. 연구 참여자 D는 배우자가 화를 내면 조용히 침묵을 지킨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 3명은 갈등회피형 대처방식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 C는 부부싸움 끝에 경찰이 개입해서 분쟁을 종식시킨 경우도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면담조사결과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마을 공동체 갈등 해결에 있어서 경찰관이 일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 한편 연구 참여자 E는 적극적으로 분쟁에 대처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연구 참여자 E는 부부간 갈등이 발생하면, 큰 소리로 몇 마디 한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 E는 부부갈등이 발생할 때, 집을 잠시 떠나 있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담 결혼이주여성들은 분쟁을 자체 해결하고 있었다.

6) 분쟁해결조력자

본 설문 문항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해 분쟁 및 갈등이 발생할 때 조력자가 누구인지 질문하였다. 정용균 [41] 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경찰관이 마을 공동체의 분쟁 해결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용균 [42] 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도 교통사고 처리에 경찰관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마을 중앙에 있는 사찰의 스님이 중재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라오스의 경우는 자체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양가 부모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43] , 선택지에, 부부해결, 시부모, 종교단체, 경찰서, 모국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포함시켰다. 그 결과 모든 참여자들이 부부끼리 자체 해결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시부모는 중재자나 조정자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하나도 없었다. 이는 부부갈등인 경우, 주로 시부모가 남편 편을 들어서 아예 시부모는 조력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모국 친구의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이 한 명 있었다. 그 경우는 "친언니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연구 참여자 A). 다른 한 경우는 종교단체의 조력을 받는다고 응답한 사례가 한 명 있다. 그 여성은 "종교단체에 같이 다니고 있는 언니들이 5-6명 있는데, 그들도 딸과 동갑인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이들과 양육문제, 남편 문제에 대하여 서로 털어놓고 얘기한다."고 하였다(연구 참여자 B). 연구 참여자 한 명은 경찰서에서 와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었다.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아무도 없었다. 연구자는 별도의 항목으로 모두에게 "분쟁이 발생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고 면담 시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서, 한 명을 제외하고는 연구 참여자 대다수가 모두 자기 자신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머나먼 타국에 와서 마지막 의사결정자는 자기 자신 뿐이라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남편도 포함되지 않고 있어서 더욱 비장함을 느끼게 되었다.

5. 결론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극단적인 저 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급속한 증가일 것이다. 더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

혼이주여성들에 대한 노후 대책 [44] 등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45] . 면담조사에서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모국에 있는 부모님에게는 부부갈등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모국에 있는 친정 부모님이 걱정할까 두려워서였다고 응답하였다. 분쟁대처방식에 있어서는 대부분 갈등회피형 분쟁대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함축성으로는 첫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도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종래의 상당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을 동질의 집단으로 보고, 여러 국가 출신 여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연구한 사례들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의하면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중국이나 일본 결혼이주여성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용균 [35] 의 중국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면담자 중에서는 이제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김이선 외 [34] 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들의 국내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문제는 더욱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경제적 측면에서 두 집단 간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동남아 결혼이주여성들의 분쟁 해결 양식이나 조력자에 대하여 탐색적 시도를 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분쟁이 발생할 때 가장 믿을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 친정 부모도, 모국 친구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고 응답한 데서 보듯이 동남아시아 결혼이주여성들은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결혼이주여성들의 분쟁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고립되어있는 동남아 결혼이주여성들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첫 번째 폐쇄형 설문지를 통한 연구에서, 부부자체 해결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두 번째 주요 조력기관으로 응답한 데 비추어 볼 때, 다문화가족센터는 그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희진·김진희 [46] 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교육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네트워크 프로그램

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에서 상담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들의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그러나 현재 고립되어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처지를 고려할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한국어 교육과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제공을 넘어서 분쟁을 상담해줄 있는 전문부서를 내부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에 들어간 표본수가 작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 결과 첫 번째 연구와 두 번째 연구결과가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개방형 설문지와 면담을 통한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은 연구 참여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추후 보다 많은 면담 조사를 통해서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부부갈등의 경우, 설문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모국인과 상담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면담조사에서는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국 친구와도 가족 내 내밀한 갈등을 상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분쟁 및 갈등 사실에 대한 의논과 실제 분쟁해결과는 다르게 보고 있는 것 때문에 이처럼 상이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지 보다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보다 많은 표본을 수집하여, 연구할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둘째, 분쟁해결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설문문항 개발과 내러티브 연구방법이 시도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분쟁해결에 대한 연구를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박순희 [47] 에서 보듯이 결혼이주여성의 상처를 치유할 프로그램과 갈등대처방식을 연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H. G. Kim. (2011). Cross-Border Married Women's Family Attitudes and Behavior in Daegu Area, *The Institute for Korean Culture*, 49, 567-595.
- [2] V. Gupta, G. Surie, M. Javidan & J. Chkokar. (2002). Southern Asian Cluster: Where the Old Meets New?. *Journal of World Business*, 37(1), 16-27.
- [3] Y. K. Chung (2018). Dispute Resolution Culture and Negotiation Style of Cambodia, in the Perspective of ADR. *Southeast Asia Journal*, 28(2), 3-39.
- [4] G. Hofstede, G. Hofstede & M. Minkov. (2010). *Cultures and Organizations*, 3ed, McGraw Hill Co. New York.
- [5] I. S. Yoo. (2014). *Law and Family in Modern Vietnam*, Withus Book.
- [6] Y. K. Chung. (2016). Dispute Resolution Culture and Business Negotiation Strategy in Vietnam Based on Area Studies Methodology.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18(4), 221-262.
- [7] D. K. Zou. (1312). *Chin-Lap Pung To Ki*, (tran. by B. W. Choi, 2016), Sanin.
- [8] J. Y. Oh. (2019). Language Usage Patterns and Difficulties of Cambodian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14(4), 53-83.
- [9] D. H. Choi (2015). A Study on the Meaning of "Becoming a Mother" of Vietnamese Migrant Women, *Journal of Diaspora Studies*, 9(2), 233-256.
- [10] H. M. Jo & Hoang Thi Viet Ha. (2017).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Motivation for Marriage and Relations with Their Family Vietnam Depending on Marriage Methods: A Case of Vietnamese Marriage Migrant Women, *Discourse and Policy in Social Science*, 10(1), 143-166.
- [11] M. J. Kim, M.K. Yoo, H. K. Lee, & K. S. Chung (2006). Dilemmas and Choices of Vietnamese and Filipino Migrants. *Korean Cultural Anthropology*, 39(1), 159-193.
- [12] H. S. Kim & O. N. Kim. (2017). A Study on the Migrant's Response to the Exclusive Attitudes of Koreans: Focusing on Female Marriage Immigrants.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10(2), 145-191.
- [13] C. S. Park & N. R. Bae (2011). The Study of How to Integrate Multi-Cultural Families with the Local Community. *Journal of Asian Studies*, 14(3), 127-149.
- [14] S. E. Cha & D. S. Kim (2008). The Effects of Social Roles on Depression of Foreign Wives in Korea: Focused on the Difference among Japanese, Chinese, and Vietnamese Wives.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1(3), 131-157.
- [15] E. J. Lee & M. K. Jun (2015). Exploratory Research on Marriage Migrant Recognition for Unmarried Vietnamese Wome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3(2), 195-208.
- [16] C. Hughes (2001). *An Investigation of Conflict Management in Cambodia Villages*, Centre for Peace and Development Cambodia Development Resource Institute.
- [17] J. N. Song. (2016). *Overview on Society and Culture in Vietna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Korea.
- [18] B. S. Kwon. (2009). The Effects of Korean Ability and Self-esteem on Acculturative Stress of Marriage Based Immigrant Women: Focused on Vietnamese Filipino, and Chinese Women in Daegu.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1(2), 5-32.
- [19] M. S. Ko. (2019). Study on the Marriage Experience and Sexual Relationship of Divorced Vietnamese Immigrant Wome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9(11), 401-414.
- [20] H. R. Choi. (2015). Vietnamese Marriage Migrant

- Brides Returning Home: Implications for Korea's Transition to Multicultural Society. *East Asia Studies*, 34(1), 143-182.
- [21] A. L. Lee. (2014). The A Case Study on the Adjustment of Family Living Culture in Relation to Women Who Have Immigrated Through Marriage: Vietnamese Women in Seoul. *Korean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8(4), 69-90.
- [22] H. Y. Jeong & J. W. Kim (2010). Conflict Process According to the Acculturation of the Vietnamese Migrated Women's Family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2(2), 29-55.
- [23] E. J. Lee & M. K. Jun. (2014). A Study of Vietnamese Immigrant Women Adaptation Experiences, With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Their Home Countr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2(5), 63-86.
- [24] T. Z. Kim & B. S. Kwon. (2012). A Qualitative Study on Vietnamese Marriage Migrant Women's Experience in Rite of Passage.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43, 89-114.
- [25] T. W. Kim (2013). The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and the Conflicts between Values of Vietnamese Female Marriage Migrants. *Multi-Cultural Studies*, 1(2), 53-76.
- [26] D. Hong, S. W. Lee, S. W. Lee & S O. Choi. (2018). Loneliness by Experienced Space of Marriage Immigrant Women.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11(2), 281-316.
- [27] H. Lee, S. H. Lee & J. A. Choi. (2016). A Study for Multicultural Families as Digital Poverty: Focusing on Target Changes of the Digital Divide Survey for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6), 1-7.
- [28] K. M. Kim. (2012). Married Immigrants Women's Social Networks and Life Satisfaction in Korea: The Case of Women from China, Vietnam, and Japan.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5(2), 185-208.
- [29] S. E. Choi (2019). Intercultural Interpretation on the Family Rel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from Vietnam. *Journal of Cultural Exchange*, 8(2), 143-168.
- [30] G. King, R. Keohane, and S. Verba (1995). The Importance of Research Design in Political Sc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2), 475-481.
- [31] R. Yin. (200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Sage, 2003
- [32] J. Creswell. (2014).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Fourth Edition, Sage.
- [33] K. B. Kang (2009). Combination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es in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19(4), 43-67.
- [34] I. Kim, S. Park, H. Choi, Y. Dong, S. Park, S. Ahn & H. Kim. (2018). *A Current Study on Social Integration of Agricultural Multicultural Family*, Korean Rural Economic Institute.
- [35] Y. K. Chung (2019). Acculturation in Korean Multicultural Family: A Case Study of Chinese Immigrants in Gangwon Province, South Korea, *Journal of Studies in Kangwon Community Culture*, 40.
- [36] O. N. Kim. (2006).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Abuse of Immigrant Wom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8(4), 5-35.
- [37] J. E. Lee. (2016). A Study on Immigrants' Communicative Aspects of Sociolinguistic Perspectives: Based on Interview Narrative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in Gwangju.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44, 255-279.
- [38] H. Y. Kim & B. D. Kang (2018).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Child Education for Married Immigrant Women.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time Sciences Education*, 30(3), 1010-1021.
- [39] K. J. Hyun. (2016). Effects of Economic Hardship and Cultural Challenge on Family Processes among the Multicultural Couples: Application of the Family Stress Model Caused by Economic Pressur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30(4), 81-109.
- [40] J. de Jong-Gierveld. (1987). Developing and Testing a Model of Lonel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19-128.
- [41] Y. K. Chung. (2016). A Study of Dispute Resolution in Indonesia: The ADR's Perspective. *Southeast Asia Journal*, 25(3), 73-108.
- [42] Y. K. Chung. (2019). Japanese Dispute Resolution Culture and ADR Institution in the Perspective of Med-Arb. *Korean-Japanese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tudies*, 83, 3-24.
- [43] Y. K. Chung. (2018). Dispute Resolution Culture and Institution of Laos in the Perspective of ADR Styles.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16(3), 81-110.
- [44] M. Moon & S. H. Song (2014). Effects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Consciousness of Later Life and Social Leisure Activities on Their Preparation Perception for Their Later Life in Choongchungnam-Do.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7), 379-387.
- [45] D. H. Seo. (2017). Integration Policy towards Immigrations for Securing National Competitiveness, *Social Economy & Policy Studies*, 7(1), 87-113.
- [46] H. Lee & J. Kim (2016).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Educational Condition from Cultural Diversity Perspectiv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1), 281-288.
- [47] S. H. Park. (2016). Effects of an Integrative Art Therapy Program on Self-Efficacy and Conflict Coping Strategies in Marriage Migrant Wom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1), 565-575.

정 용 균(Yongkyun Chung)

[정회원]



- 1982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석사)
- 1992년 9월 : 미국 오리건주립대 졸업(경제학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국립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다문화가정, 인공지능,

FTA, 아세안 지역연구

· E-Mail : ykchung@kangwon.ac.kr